

농협, 당정 개혁안에 “자율” 맞불 6·3선거 前 농협법 처리 불투명

인사추천위 개선안 지난주부터 시행
추천기관 확대하고 후보 검증 강화
자회사 임추위서 중앙회 인사 배제
정부 인사개입엔 “관치회귀” 반발
공청회 연기로 선거 전 처리 난항

농협은 당·정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율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농협의 독립성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이다. 조직 내 비위에 따른 개선 방안도, 정부 입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농협은 인사추천 구조의 전면 개편 및 인사권 독립 강화를 위한 자체 개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낙하산 및 회전문 인사’ 논란의 근본적 차단을 위함이라고도 했다.

10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주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개선안’이 실행에 들어갔다.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계열사 인사에 대한 중앙회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기존 5개(상급 농업인단체 2, 대학교 3)에서 8개(상급 농업인단체 3, 학회 5)로 확대한다. 특히 복수추천 방식을 도입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였다. 또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심층면접, 평판조회 등을 통한 검증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협자율성 수호 농민결의’ 집회. /농협중앙회

중앙회의 직접 개입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중앙회 소속 인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으로 확대해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분야별로 분리 운영해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자체 추진 중인 이번 개편안은 이미 시행에 돌입했다. 중앙회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임기 만료 예정인 사외이사 선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농협개혁위원회의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개혁위원회의 13개 권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자체 개혁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최근 1~2개월간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수차례 전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 왔다.

농협자율성수호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이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 인사추천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탓에 ‘관치회귀’ 가능성을 우려했다.

비상대책위는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정부 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외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추천위원회의 취지를 훼손할 경우, 오히려 낙하산 인사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인사에 관여하면서도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정이 내놓은 1차 개혁안의 6·3지방선거 전 입법은 불투명해졌다든 전망도 나온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농림위성 영상으로 농업용수 관리한다

농어촌공사, 농진청과 위성정보 협력
가뭄·홍수 등 기후재해 대응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농림위성’ 영상의 적극 활용을 추진한다.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과 ‘농업위성 정보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일 공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와 농촌진흥청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하반기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첫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 CAS500-4)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가뭄, 홍수 등 농업재해 위험이 커지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이 협약의 핵심은 농림위성 영상을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농업위성 영상 활용 농업생산기반 관리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분야 데이터의 공동분석·활용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과 교류 추진이다.

특히, 농진청이 제공하는 농림위성 영상과 분석 정보를 활용해 저수지, 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진청의 농작물·농경지 모니터링 정보에 공사가 보유한 농업용수·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연구 정보, 기술을 연계해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동서발전, ‘강원형 바람 연금’ 시동

강원도·강원개발공사와 업무협약
풍력발전 수익 도민 소득으로 환원

한국동서발전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풍력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강원형 바람 연금’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동서발전은 지난 8일 강원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개발공사와 ‘강원형 바람 연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사업자 수익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풍력발전 수익이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병조 동서발전 재생에너지처장, 심원섭 강원도 산업국장, 정명구 강원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육상풍력 사업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기술적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후보지별 개발 여건 분석, 계통연계 자문 및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강원



(왼쪽부터) 정명구 강원개발공사 본부장, 김병조 한국동서발전 재생에너지처장, 심원섭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장 등이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서발전

개발공사는 자원 조달 및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방안 검토한다. 강원도는 관계기관의 의견 조율, 주민 의견 수렴 및 행정 지원을 맡는다.

동서발전은 현재 9개 풍력발전단지에서 총 123기의 풍력발전기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발전공기업 중 최고 수준인 350.9MW의 육상풍력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이러한 독보적인 개발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원형 공공주도 풍력사업’을 상생형 모델의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주재각 한국전력 AI혁신단장(가운데)과 강상균 디엑스 상무, 이우식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무 등이 지난 8일 서울 남서울본부에서 ‘KEPCO Energy AI Partners’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한전, AI 기업 19곳과 전력산업 AX 본격화

‘KEPCO Energy AI Partners’ 출범
정부·공공·민간·학계 협력망 구축
복잡해진 전력망 운영 난제 해결 추진

한국전력(한전)이 국내 우수 AI 기업들과 손잡고 전력산업의 AI 대전환(AI AX)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 8일 서울 남서울본부에서 정부·공공·민간·학계가 참여하는 전력산업 AI 협력 네트워크인 ‘KEPCO Energy AI Partners’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해 복잡해지는 전력망 운영의 난제를 최신 AI 기술로 해결하고, 전력 생태계 전반의 AI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결성됐다. 특히 첨단 AI 기술의 상당수

가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 만큼, 한전은 기관과 기업, 학계가 시너지를 내는 ‘전방위적 상생형 협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회의에는 주재각 한전 AI혁신단장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에너지공단(KENTECH)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리벨리온, 마음AI, 데이터스트림즈, 수퍼브AI 등 국내를 대표하는 AI 전문기업 19개사 대표들이 참여해 전력산업과 AI 기술의 구체적인 융합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은 이 자리에서 ‘AI로 연결되는 전력산업 생태계의 미래, Power AX Partners’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한 4대 중점 추진방안으로 ▲제도 개선 ▲성과 창출 ▲성장지원 ▲정보교류를 제시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3월 ‘AI 대전환 경영혁신 선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AI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이러한 경영 방침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주재각 한전 AI혁신단장은 “전력산업의 미래는 전력 인프라와 민간의 첨단 AI 기술이 결합하는 ‘초협력’에 달려 있다”며, “본 협의체가 국가 AI 3대 강국(G3) 도약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전력 AI 시장을 선점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부발전, 제주 풍력단지서 비상탈출 훈련

나셀 화재 고립 상황 가정해 진행

한국중부발전이 재생에너지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합동훈련을 전개했다.

중부발전은 지난 7일 제주 풍력발전단지에서 재생에너지운영본부, 두산에너지서비스, 한국에너지종합기술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탈출 및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풍력발전 설비는 주로 해상이나 오지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외부 구조대의 신속한 접근이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장 작업자의 초기 대응 능력 확보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중부발전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이영

조 사장이 직접 현장 지휘봉을 잡아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안전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훈련은 세계풍력기구(GWO)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TOMS,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진행됐다. 주요 과정으로는 약 80m 높이의 나셀(Nacelle, 풍력발전기 상부 기계실) 내부 화재로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마네킨을 활용한 비상탈출 시연과 전 직원의 탈출 장비 실습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고소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서 장비 사용법을 몸소 익히며 현장 적응력을 높였다.

또 고파도 등 거친 해상 환경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이송 훈련도 병행됐다. /세종=한용수 기자